

학교 보건 활동

—校醫의 機能을 中心으로—

李 根 泰

延世醫大 教授·醫博
學校保健協會 諮問委員

교의(校醫)의 기능이나 책임에 있어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간추려 본다면 學校保健事業에 대한 협조를 하게되며 學校保健을 위하여 學校職員, 保健機關要員이나 學父母(지역사회인사)와의 접촉을 통하여 지역사회보건에까지 관심을 갖게 하며 학교보건 봉사를 위한 의료기술을 제공하며 健康教育에 적극 협조하며 健康評價에도 기여하는 것 등일 것이다. 이와 같은 제반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몇몇가지 예를 들어 學校保健의 實際面의 개선 또는 증진을 위한 原理 및 方策의 일부를 기술해 보고자 한다.

學校保健事業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하여 :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한다. 學校保健事業에 대한 이해없이 學童保健은 이룩할 수 없다. 바꿔서 말하면 학교의 敎師, 學父母들이 교의(校醫)나 養護敎師가 진행하고자 하는 保健事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그 좋은 成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를 위하여서는 어떤 사업이나 행사가 있을 때에 국한하여 교육 또는 계몽을 꾀할 것이 아니라 평소 이러한 점에 관심을 두고 서서히 계획된 프로그램을 진행함이 바람직하다. 직원회 또는 연구수업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교사들의 이해증진에 힘쓰며 어머니敎室을 이용하여 學父母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행사나 사업진행중에 있어서는 事前, 事中, 事後를 통하여 밀접한 연결선상에서 집중적으로 관심과 이해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즉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을 이해시키며 진행중에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향을 제시하여 협력토록 인도(引導)할 것이며 사후에도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사후대책 등을 유기적(有機的)으로 협의 결정함으로써 실감있는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상의 이론을 토대로 學童의 기생충 구충사업(寄生虫 驅虫事業)에 있어서의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생각해 본다.

1. 事前작업 : 학교에 있어서는 寄生虫 검사나 구충작업(驅虫作業)을 실시하기 전에 교사들에 대해 이해증진을 위하여 기생충의 감염(感染) 실태, 기생충에 의한 피해, 생활사(生活史), 예방에 대하여 이해시키며 이 사업의 계획 등도 협의 결정함으로써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한편 學父母에 대하여는 통신이나 집회(어머니敎室 등)를 통하여 어린이와 기생충예방, 또는 기생충의 피해와 구충(驅虫)의 필요성 등을 납득시키고 협조를 요청함이 좋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교육면에서도 중요한 기생충에 대한 保健教育을 學童에게 실시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2. 事中작업 : 사전작업에서 다져놓은 기초위에 사업을 진행시키며 계속 협조를 이끌어 나간다. 즉 각 敎師들을 통하여 기생충 검사의 중요성을 學童에 인식시킴으로써 學童들의 자진참여를 고취하며 學父母에 대하여서도 기생충 검사의 내용 및 필요성을 계속 인식시키고 실천하는데 박차를 가함이 좋을 것이며 學童들에 대하여는 검변(檢便)을 자신들에게 경험시킴으로써 실감있는 健康教育의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한다. 다만 검변(檢便)에 응하지 않는 學童에 대하여는

어떤 벌(罰)으로써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불응한 이유를 분석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敎師와 學父母가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ㄷ. 事後作業 : 檢便(檢便)에 의하여 나온 결과를 중심으로 당교(當校) 學童의 기생충감염의 양상을 이해시키며 건강증진을 위한 구충(驅虫) 작업 진행과정을 이해시키며 學父母에게는 검사 결과를 통지하여 집단구충(集團驅虫) 대상 기생충(예 : 회충)감염과 구충계획(驅虫計劃)을 알리며 기타 기생충 감염시에는 면접 또는 집회를 통하여 납득시켜 특수 구충(驅虫)을 협의함이 좋겠다.

學童에게는 기생충감염, 예방, 구충(驅虫)의 필요성을 교육함으로써 일련의 기생충에 관한 교육이 체험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健康教育에 관한 敎育課程 作成을 돕는 일 : 말 할 것도 없이 保健敎育내지는 健康敎育은 교의(校醫)나 양호교사의 특점물이 아니며 오히려 일반교사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일반 교과목(敎科目)—科學의 교과과정에서 健康 또는 질병예방에 관한 것을 學童에게 敎育하는 경우 일반교사도 그 내용에 대하여 주지하고 있을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나라 현상에 부합되는 내용이나, 강조해서 교육해야 할 내용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적인 면이 풀이되어 교육되어야 할 때는 교의(校醫) 또는 양호교사의 조언(助言)이 필요할 때가 적지 않는 줄로 생각한다. 또한 교의(校醫)나 양호교사가 學童뿐만 아니라 학교敎師 또는 學父母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도 일반교사가 學童授業前에 교안(敎案)을 작성하듯이 교육할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기대하는 바의 교육성과를 총괄적으로 요약설정(要約設定)한 교수목적(敎授目的)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學童의 학년에 알맞은 교육목적(General

Instructional Objective: G.I.O)을 설정하고 소정시간에 교육할 교육목표(Specific Behavioral Objective: S.B.O.)를 결정 작성함이 바람직하다. 국민학교 5~6학년 學童에게 회충과 회충예방에 대하여 교육할 목적으로 작성된 교수목적과 교육목표를 예시해 보겠다.

대상 : 국민학교 5학년 學童

주제 : 蛔虫 敎育時間 :

GIO:

학생들은 회충의 모양, 생활사 및 감염경로를 이해하고 회충감염에 대한 예방법을 습득하여 가정 및 학교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SBO:

1. 학생은 그림이나 실물표본을 보고 회충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2. 학생은 회충란을 이해하고 충란에 의해 감염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학생은 회충란으로 오염된 음식물 섭취로 충란이 인체내에 들어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학생은 회충란이 오염된 물, 파리, 흙장난 하던 손 등을 통하여 감염되는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5. 학생은 회충란에 오염된 물과 채소를 끓임으로써 살멸되는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6. 학생은 생으로 먹는 채소는 흐르는 물에 여러번 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7. 학생은 흙장난 후에 또는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이유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8. 학생은 손톱을 자주 깎아서 때가 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9. 학생은 기생충검사(檢便)의 목적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